

문학의 속성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교육 방안 연구

-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를 중심으로 -

조 하 연*

〈차 례〉

1. 문제제기
2.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
3.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낯설게 하기'의 역할
4. 창의적 사고의 계발을 위한 '낯설게 하기'의 활용방안
5. 논의의 확장 가능성

1. 문제제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된지 이미 오래다.¹⁾ 더 나아가 창의적 사고는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의 하나로서가 아

* 한남대 강사

- 1) 교육적 관점에서 창의성 개념이 논의되는 이유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첫째,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인간 효율성의 감소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마지막 대비로서 이 개념에 주목하는 것. 둘째,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습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주목하는 것. 셋째,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주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p.719.

나라,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창의적 사고는 바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이다.²⁾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교육현장에서도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던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를 얼마나 발달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습자 중심, 창의적 사고의 신장을 특징으로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분명히 드러난다.³⁾ 현행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어과에서는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⁵⁾

그러나 정작 창의적 사고가 무엇인지, 창의적 사고를 신장하기 위해

2) 윤종건,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1994, p.23.

3) “수준별 교육과정의 두 가지 특징은 학습자 중심과 창의적 사고의 신장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보편적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학습자의 개별적 수준에 맞게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보다는 개별성, 규범성보다는 비규범성,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의 신장’이라는 덕목으로 귀결된다.” 김중진,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학』 제4호, 태학사, 1999, p.13.

4) 교육부, 『국어과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 1998, p.28.

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p. 18~19. 참조.

어떤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이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창의력 관련 프로그램과 서적이 범람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적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와 실용서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어교육 영역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아직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국어교육에서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작문-필자주)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는 창의적 사고 활동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창의적 사고 활동을 함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생각의 판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평소에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참신한 생각이나 기발한 착상을 포착할 수 있다. 또, 창조적 사고 활동을 함으로써 필자는 추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에서 설정한 주요 내용 또는 문제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⁷⁾

7차교육과정 해설 중 작문의 내용 생성하기를 설명한 위 부분의 요지는 창의적 사고 활동은 ‘참신한 생각이나 기발한 착상을 포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하며,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그런데, 여

6) 창의적 사고가 굳이 국어교육에서만 유독 강조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력이 언어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 241.

8) 브레인스토밍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는 주로 인지주의적 작문 이론의 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작

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의적 사고 활동', '참신한 생각', '기발한 착상', '창조적 사고 활동' 등 서로간에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뿐더러,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구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교육 과정을 해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창의적 사고 활동'을 설명하는 데, 비슷한 어구들이 반복 사용됨으로써 일종의 동어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아직 창의적 사고를 명확히 설명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교육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라는 영역이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여전히 탐색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창의적 사고를 포함하여 국어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고력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사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

흔히 사고력이란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신능력⁹⁾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활동은 바로 이러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¹⁰⁾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로 놓을 수는 없지

문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Flower의 경우 창의적인 사고를 일종의 놀이형식으로 간주하고, 계획하기와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등의 활동을 '창의적인 트리오'라고 규정하고 있다. Flower, Linda,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원진숙, 황정현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1998, pp.228~229.

- 9) '思考'와 '力'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이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사고(thinking)'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白日夢'의인 정신 상태에서 의도적인 문제 해결의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는 주로 의도적인 정신 작용의 운용력을 사고력으로 규정한다.(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p.380.) 그러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개념이 결국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관점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소 모호해 보일지라도 '생각하는 힘' 정도로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김대행, 『문학교육 탐색기』, 역락, 2000, p.152.)

- 10) 일반적으로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첫

만, 언어를 통한 사고력의 증진, 사고력의 증진을 통한 언어능력의 증진은 그동안 국어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어교육을 통한 사고력의 증진이라는 영역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문학의 속성과 사고력의 문제를 접목하려 했던 최근의 연구물들¹¹⁾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찰과 발견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적 활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력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결과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학의 속성에 기댄 사고력의 계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된 논지로 하고 있다.¹²⁾ 물론 문학이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과 문학이 창의적 사고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사이에 별다른 마찰 없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창의적 사고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의 창의적 속성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문학 작품'이라는 결과물보다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활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학의 속성을 활용한 최근의 논의들은 창의적 사고를 계발하는 구

째, 언어가 사고보다 중요하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사고가 언어보다 중요하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것, 셋째, 사고와 언어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1999, pp.55~60.

- 11) 김대행,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제5집, 태학사, 1998.

김중진,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4호, 태학사, 1999.

최인자, 「창의력을 위한 '문제'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론 : 서사 표현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10집, 국어교육학회, 2000.

- 12) 문학과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문학이 만들어 낸 형상이란...(중략)... 현실에 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직된 경험과 창조될 가능성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은유가 되며 따라서 다의성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문학의 속명이다. 이 속명이 곧바로 창의력을 위한 사고력의 기반으로 강조되는 미덕이다." 김대행,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제5집, 태학사, 1998, p.12.

체적인 절차나 매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학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언어활동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논의를 한단계 성숙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언어활동을 통한 사고력의 증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증진된 사고력을 통해 인간의 언어활동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정의 교육적 설계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학의 속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구조

창의적 사고를 다룬 그간의 연구사를 통해 볼 때,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그 시도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 할 수도 있다. 창의적 사고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지만, 심리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철학,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연구자의 말대로 창의적 사고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대답이 '연구자의 수만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¹³⁾

그러나, 이중에서도 최근 국어교육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점은 무엇보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본 창의적 사고관이다. 인지주의적 관점에 따르자면, 창의적 사고는 문제해결적 사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창의적 사고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들의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기 위한 사고 능력'¹⁴⁾을 말한다는 것이 그

13) 다양한 창의성 관련 논의들의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 고완(J. C. Gowan)은 자기도취와 합리성을 양극으로 하며, 이 양극의 사이에 정신 분석, 정신 건강, 인성 등의 요소를 배치하여 창의성 논의가 대체로 이러한 연속선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임선하, 『창의성의 초대』, 교보문고, 1996, pp.19~26. 참조.

14)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p.719.

주된 요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이디어들의 새로운 결합'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창의적 사고의 교육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그 새로움의 정체가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예문을 통해 그 새로움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추상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움을 논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새로움의 정체를 추출해 가는 것이 좀더 생산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거사(居士)가 거울을 한 개 가졌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꼭 구름에 가린 달빛과 같았다. 어떤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이것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의 거울은 흐릿한 것이 안개 낀 것과 같은데, 그래도 그대는 오히려 늘 비춰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들이다. 못생긴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일 한 번 보면 반드시 깨뜨려서 부서 버리고야 말 것이니, 이는 먼지에 흐려져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이 이 같은 부식되었을지라도 그 맑은 바탕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다시 같고 닳을지라도 늦지 않다. 아! 옛적에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했겠으나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그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이니, 그대는 무엇을 이상스럽게 여기는가." 하니 객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규보, <경설(鏡說)>

위에 인용한 글은 오늘날에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으로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의 <경설>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의 하나로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들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대개는 '거사'가 거울을 보는 관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사'는 거울에 대한 상식적 관점을 뛰어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거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또한 거사의 주장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런 면에서 거사의 주장을 창의적 발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즉,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거울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맑아야 한다. 그러나, '거사'의 관점에서 무조건 거울의 맑음만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많은 일이 된다. 이런 이유로 '거사'는 거울의 흐림을 취하고자 한다. 물론, '거사'가 거울의 흐림을 취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흐림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 있는 맑음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거사'의 발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한편,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설〉의 구조는 이 글의 논의 대상인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는 '새로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이 글을 좀더 살펴보면, 이 글에 나타난 창의적 사고의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 글에 나타난 창의적 사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거사가 제시하는 사고가 거울에 대한 기존의 보편적 이해에 더해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듯 기존의 이해와 거사가 덧붙인 새로운 이해는 거울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창의적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필요조건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로 창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창의성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발산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언중에게 창의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앞에 인용한 이규보의 경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투적 인식 — 거울 — 새로운 인식

즉, 거울에 대한 상투적 인식에 새로운 인식을 덧붙임으로써 거울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혔다는 점이다. 만일 거사가 덧붙인 새로운 인식이 거울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사는 거울에 대한 창의적 인식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거울이라는 대상을 매개로 한 하나의 단상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일상화된 인식에 대한 이해와 이로부터의 거리두기가 모두 필요하다. 이때, 상투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 언어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위와 같은 도식으로는 창의적 사고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도식화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사고의 주체와 사고의 대상을 각각 잘 알려진 부분(상투적인 부분, 문화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의 구조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¹⁵⁾ 이 도식에 따르면,

15) 이 도식은 인식의 범위와 가능성을 연구하는 서구적 인식론에서 제시하는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활용한 것으로, 자칫 대상의 인식이라는 정신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창조적 사고라는 추상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식의 다양한 국면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만들어 보았다. 물론, 실제의 도식은 여기에 제시한 것보다 입체적으로 그려야 할 것이다. 주체의 인식영역과 대상의 속성을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것은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듯 단순하기 때문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 네 개의 부분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모두 8가지의 조합이 나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고가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의미있는 조합은 ①→a, ①→b, ②-a, ②→b의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이때, ①→a의 상황이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미 자동화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자동화된 인식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인식(넓은 의미에서의 상식)은 우리의 일상을 무리없이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안정성과 함께 그러한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듯 자동화된 인식에 대한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창의적 사고이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란 기본적으로 ①→a의 상황을 넘어 ①→b의 상황을 추구하게 된다. 즉, 대상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적 사고의 기본요건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b가 대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창의적 사고는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①→b로 이동한 관점으로 다시 ②의 영역을 찾아내어 ①이었던 주체를 ①+②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선후의 관계를 쉽게 따질 수는 없겠으나, 대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그 대상과 영향 관계에 있는 주체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성현의 말에 알고도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모르는 상태와 일단 알게 된 상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모를 때와 그것을 알 때와는 서로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주체를 그만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창의적 사고과정 〉

1단계 : ①→a

2단계 : ①→b

3단계 : ①→b → ①+②

그리고, 이를 다시 앞에 인용했던 경설의 내용과 결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단계 : 거울은 맑아야 한다.

2단계 : 거울은 흐려야 한다.

3단계 : 나는 거울의 흐름을 취할 수 있는가 →

흐림과 맑음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주체로의 성장

만일, 이러한 도식이 가능하다면, 이제 문제는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으로 이동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을 창의적 사고의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상세화해 볼 수 있다. 즉, 거사가 거울의 맑음과 흐림을 모두 취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여주는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길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을 것인가? 교육적으로 설계된 언어활동이 이러한 과정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16)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3단계에서 일어나는 주체의 인식이 성장하는 국면일 것이다. 최종적인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국면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내면화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드러나 있는 글 뿐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적용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좀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나, 이 글에서 모두 다루기보다는 다른 자리를 빌어 논의하고자 한다.

3.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낯설게 하기'의 역할

이제 앞에서 제시한 3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마다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1단계는 우리에게 자동화된 인식이다. 2단계로의 발전은 우선 이렇듯 자동화된 단계의 확인과 이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1단계의 인식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동화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자동화된 것이 아니다. 익숙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규정하는 일과 그것에 대해 의심하는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 익숙한 것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를 상대적인 '무엇'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상대적인 무엇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화된 인식은 이미 그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에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동화된 인식의 객관적 상대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설계된 언어활동이 개입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낯익은 문학의 원리인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를 통해 이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낯설게 하기'란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가인 슈클로프스키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문학의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슈클로프스키는 1917년 「장치로서의 예술」이라는 논문에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에 대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가한 결과물이며, 상투적인 인식을 방해하고, 그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행을 나누거나 연을 나누는 행위는 낯설게 하기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김준오는 이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¹⁷⁾

(가) 버스는 창을 닫고 시속 120킬로의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나) 버스는 창을 닫고

시속 120 킬로의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가)를 정보전달에 초점을 둔 하나의 산문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행을 나눔으로써 형성된 내재율로 인해 하나의 시구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이는 행을 나누는 행위로 인한 '낯설게 하기'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가)와 (나) 사이에는 단지 제시 형태의 차이가 아닌 이 둘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쉬클로프스키를 비롯한 형식주의자들의 이같은 논리는 그야말로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것이어서, 문학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¹⁸⁾ 그러나, 적어도 문학의 기능이 일상에 대한 일상적 인식을 저지하고, 반성적인 새로운 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형식적 조작들이 그 자체로 새로운 인식을 불러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형식적 요소들을 교육적 활동을 재구성하여, 일상적인 인식에 대한 거리두기를 경험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의성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인식, 기존의 인식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규보의 〈경설〉에서 보듯이, 그것은 인간의 인식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얼마나 확장시키는가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경설〉의 경우를 본다면, '낯설게 하기'의 구체적 방법으로 관점(perspective)의 변화가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 글에서 거울이

17)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pp. 96~97. 참조.

18) 테리이글턴,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86.

19) 쉬클로프스키에 의하면 낯설게 하기는 세가지 차원에서 작동된다. 첫째는 언어의 차원이다. 이는 시에서 시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배열하거나 자의적으로 배치하

맑아야 한다는 것은 군자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본 것이며,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거사는 이러한 주체를 잘 생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특히 후자의 경우로 거울을 바라본다.²⁰⁾

이렇듯 ㉠로부터 다시 ㉢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을 다른 질서 속에 넣어봄으로써 ㉠이외의 다른 인식이 존재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곧바로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가 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인식인가 하는 것과 함께 ㉠과 ㉠을 낮설게 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물 모두 대상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증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2단계에서 3단계로의 발전 역시 '낮설게 하기'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 1단계의 인식이 자동화되었는가를 의심하는 과정이 바로 2단계에서 3단계로의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당연시되었던 ㉠을 낮설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같은 과정을 통해 확장된 ㉠로서의 ㉡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창의적 사고의 구조와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서 문학의 원리인 '낮설게 하기'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드러났다

여 독특한 리듬과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내용의 차원이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들을 뒤돌아 보는 경우이다. 셋째, 문학적 형식의 차원이다. 이는 기존의 저명한 정전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장르들을 순수 예술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 등이 있다. Makaryk, Irena R.,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3. 참조.

- 20) 이와 관련하여 '說'이라고 하는 양식이 보여주는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개의 경우 '說'이라는 양식에서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유추해 내고 있는데, 이 글에서 인용한 〈경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유한다. '說' 양식의 이러한 특성 역시 창의적 사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유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說' 양식에 나타나는 창의적인 유추의 과정에 기존의 인식에 대한 '낮설게 하기'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생각이다.

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²¹⁾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창의적 사고의 증진을 위한 언어활동이 국어교육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앞의 내용이 다시 구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낮설게 하기'라는 원리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창의적 사고의 제발을 위한 '낮설게 하기'의 활용 방안

앞 절에서 '낮설게 하기'가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를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상의 언어활동과 '낮설게 하기'라는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간극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낮설게 하기'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학언어', '특별한 문학장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일상언어와의 커다란 차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일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 문

21) 이 부분에서 굳이 '낮설게 하기' 혹은 문학의 속성을 빌어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 글에서 논의된 창의적 사고의 모델이 굳이 '낮설게 하기'라는 문학의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필요에 따라 - 때로는 웃기 위해서, 혹은 즐기기 위해서 - 상황을 낮설게 하고, 표현을 낮설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낮설게 하기'는 굳이 문학(학)에만 속하는 개념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일상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서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동떨어진 것도 아니다. 문학 교유의 원리는 일상 언어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초점화시켜 언어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낮설게 하기'가 여전히 유효한 문학의 원리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다 것은 이러한 개념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를 일관성 있게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문학 작품)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왜 굳이 '낮설게 하기'인가라는 질문은 이 용어가 가지는 이러한 효용성에 기대어 정당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언어는 일상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는데,²²⁾ 이러한 관점은 일상언어와 문학언어와의 명확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쉬클로프스키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이러한 형식주의자들의 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예술의 기법은 사물을 “낯설게”하고 형식을 어렵게 하며, 지각을 힘들게 하고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한다. 왜냐하면 지각의 과정은 그 자체가 미학적 목적이고 따라서 되도록 연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한 대상의 예술성을 경험하는 방법이며, 그 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²³⁾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질들을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형식주의자들의 문학관은 쉽게 일상의 언어와 접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사고력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새로운 내용의 생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하는 형식주의자들의 개념인 ‘낯설게 하기’를 사고력의 증진과 관련된 교육 활동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난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쉽게 극복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적 활동은 예술의 창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수행과 경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⁴⁾ 예술의 창작을 목표로 한다면, 이와 같은 형식

22) 테라이글턴, 김명환 외 역, 앞의 책, p.11.

23) 쉬클로프스키, 서울·문학과사회연구소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청하, 1986, p.34.

24) 교육 내용을 보다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국어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포함한다.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습활동이 학년별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지적도 이와 관련된다. 최근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을 지식, 수행, 경험, 태도의 차원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주장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수열, 『판소리와 매체언어의 국어교과학』, 역락, 2001. 참조.

주의적인 관점이 커다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나, 사고력의 증진 방안의 하나로서 '낯설게 하기'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무조건 창의적인 발상을 하도록 요구하기 이전에 주어진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해보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동화된 일상을 상대화할 내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경험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자동화된 일상에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문학의 역할과도 상통한다.

물론, 이렇게 '낯설게 하기'의 교육적 효과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형식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문학적 장치들에는 음운·이미지·리듬·서술기법 등 거의 모든 문학의 형식적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도대체 '낯설게 하기'를 활용한 교육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다시 두가지로 세분화해볼 수 있다. 첫째,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문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굳이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을 교육 활동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 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토록 다양한 요소들을 학생들이 모두 경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혹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이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창의적 사고의 계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창의적 사고의 구조를 도식화하면서, 우리의 과제가 각각의 단계로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것임을 논의한 바 있다.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 역시 이를 위해 도입되었다. 앞에서 '낯설게 하기'를 대입했던 지점에 음운이나, 이미지 등의 요소들을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낯설게 하기'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적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 수 있다.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가능하다. 즉, '낯설

게 하기'가 포함하는 다양한 문학의 요소 중에서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고 이를 활동으로 요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는 음운을 통한 '낯설게 하기'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서술방식에 의한 '낯설게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의 다양한 요소들을 선별해 낸다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낯설게 하기'를 활용하여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된다. 이 글의 목적이 '낯설게 하기'를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의 계발을 꾀하는 것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행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낯설게 하기'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모형〉

- ① 대상의 확인
- ② 대상을 다른 질서 속에서 파악하기 (다양한 문학의 기법 활용)
- ③ 최초의 인식과 달라진 점 찾기
- ④ 두가지 인식의 타당성을 비교하기
- ⑤ 인식 주체로서의 자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대상의 확인이란 문제가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의의 기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이 단계에서 다양한 사전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상의 담화에서 그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가를 확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그 대상에 대한 자동화된 인식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또 다른 의미부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대상을 다른 질서 속에서 파악하기란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활용하여, 앞 단계에서 확인한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²⁵⁾ 이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상에 따라 학습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를 자신의 느낌에 따라 시처럼 재구성해본다든가, 율격을 맞추어 약간의 변형을 주는 행위 등을 시도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단계를 말한다.

앞의 두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두가지의 비교대상을 가지게 된다. 즉, 최초에 제기된 대상과 그것의 인위적 변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다음 단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것, 최초의 인식과 달라진 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 두가지 인식이 모두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인식의 타당성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²⁵⁾

이러한 과정의 끝에 인식 주체로서의 자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제기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된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자신의 인식이 도달한 지점과 최초의 지점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스스로 모색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서로 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학습활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인식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논의가 적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5) 물론 형식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특별한 '기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문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문학의 영역은 늘 새롭게 구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법이라 함은 지금까지 문학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던 기본 개념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운율, 이미지, 시점, 플롯, 주제 등 다양한 용어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6)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인식들 모두가 타당성을 잃게 되거나, 혹은 둘 중의 하나가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만일 새롭게 제기된 인식이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는 앞의 단계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계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낮설게 하기'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계발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창의적 사고가 지향하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고의 주체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조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결과로서의 창의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는 결과로서의 창의성이 아닌, 즉,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가 하는 점보다는 인식의 틀을 넓혀가는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적 지식과 활동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학습자들이 내면화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어교육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언어라고 점을 잊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낮설게 하기'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계발은 바로 인식의 성장과 언어의 운용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서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가치가 있다.

5. 논의의 확장 가능성

많은 논자들이 언급한대로 형식주의자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형식에 경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²⁷⁾, '낮설게 하기'는 새로운 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속성이다. 그리고, 언어활동 자체가 대상에 대한 발견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낮설게 하기'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증진은

27) '낮설게 하기'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형식에 경도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쉬클로프스키가 1917년의 논문〈기술로서의 예술〉에서 이 용어를 처음 언급한 이후의 논문들에서는 점차 '문학의 형식적 장치'들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테리이글턴, 김명환 외 역, 앞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우리의 언어활동을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⁸⁾

그러나 이에 덧붙여, 끝으로 '낮설게 하기'를 통한 창의적 사고의 증진이 결국은 창의적 문화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언어활동과 사고력의 관계는 서로 상보적인 것으로 그 영향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교육적으로 구안된 언어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증진된 사고력을 통해 인간의 언어활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 역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한 창의적 사고의 증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측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제까지의 논의에 반드시 덧붙여져야 할 부분이다. '낮설게 하기'를 통한 창의적 사고의 증진이 결국은 창의적 문화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문화를 제기하는가?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속에서 그 문화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가 반드시 올바른 것이 아니며, 늘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예술과 새로운 경제체제와 새로운 정치체도를 만들어왔고, 그 변화의 결과가 지금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푸코가 지적한대로 모든 시대는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서로 다른 '에피스테메'에 비해 낡은 것이다. 창의적 사고는 자신이 속한 시대의 문화에 대해 익숙함과 낯섦의 두가

28) '낮설게 하기'와 창의적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낮설게 하기'가 창의적 사고를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역으로 창의적 사고를 통해 '낮설게 하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글의 앞부분에서 언어와 사고의 쌍방향적 관계를 언급했듯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 관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논의 전개상 '낮설게 하기'를 다소 의도적으로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 것은 이 글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추구해야 할 문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더욱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는 교육적으로 설계된 표현 활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며, '낮설게 하기'는 이러한 교육적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의 속성이자, 언어의 자질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증진된 창의적 사고는 다시 창조적 문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바탕이 된다는 점을 제시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대행(1992),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김준오(1982), 『시론』, 삼지원.
 김중신(1999),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4호, 태학사.
 류수열(2001), 『판소리와 매체언어의 국어교과학』, 역락.
 박인기(1996),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출판부.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1998), 「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양현승(2001), 『한국 '說' 문학 연구』, 박이정.
 염은열(2000),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이삼형 외(1999),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출판부.
 이지호(2001), 『글쓰기와 글쓰기교육』, 서울대출판부.
 임선하(1996), 『창의성에의 초대』, 교보문고.
 최경숙(1995), 「수수께끼 소통구조의 연구」, 서울대 석사.
 최인자(2000), 「창의력을 위한 '문제'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론 : 서사 표현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10집, 국어

교육학회.

- Eagleton, T., *Literary Theory*, 김명환 외 역(1986),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 Feldhusen, J. F., Treffinger, D., J.,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in gifted education*, 전경원 외 역(1993),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서원.
- Flower, Linda,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원진숙, 황정현 옮김(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 Hartmann, N.,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e*, 강성위 옮김(1987), 『철학의 흐름과 문제들』, 서광사.
- Jenks, Chris, *Culture(in Key Ideas Series)*, 김윤용 역(1996),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 Makaryk, Irena R.(1993),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hklovskii, V., 문학과사회연구소 역(1986),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청하

〈초록〉

문학의 속성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교육 방안 연구

- '낯설게하기 (defamiliarization)'를 중심으로-

조 하 연

변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교육현장에서도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던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를 얼마나 발달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습자 중심, 창의적 사고의 신장을 특징으로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국어과에서는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창의적 사고가 무엇인지, 창의적 사고를 신장하기 위해 어떤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교육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라는 영역이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문학의 속성과 사고력의 문제를 접목하려 했던 최근의 연구물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찰과 발견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적 활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력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결과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학의 속성에 기댄 사고력의 계발이 가능하다는 것

을 주된 논지로 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언어활동을 통한 사고력의 증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증진된 사고력을 통해 인간의 언어활동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정의 교육적 설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학의 속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문학의 익숙한 원리 중의 하나인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동화된 일상으로부터 탈피하여 세계의 이면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일상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상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측면을 발견하는 데 창의적 사고의 핵심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낯설게 하기'의 형식적 기제들의 활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에 도달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똥함'과 '창의성'의 구별이 필요해 지는데, 이는 사회 구성체에 의한 용인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핵심어】 사고력, 창의성, 창의적 사고, 문학의 속성, 낯설게 하기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creative thinking through the literariness

Cho, Ha-youn

Today requires more creativity to the people than the past. In this reason raising the creative thinking ability of the student is very important to the education today. For example current curriculum emphasizes the ability of creative thinking as well as critical thinking.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the various aspect of the creative thinking. We know that creative thinking is important for current student but we didn't answer the method of teaching.

I gave attention to the former studies based on the attribute of literatur : literariness. We know that literature is creative activity of human beings. Because it always requires new inspection of the world with new viewpoint. I aimed at this literariness and thought this creative attribute can be used in the class.

In particular I concentrated on the familiar principle of Literature - defamiliarization. I argue that defamiliarization can give student a chance to breaking the automatized world and exploring the other side of the object. In doing so, I tri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creative thinking and present a

new model of creative thinking.

But I am afraid this essay is not enough to be used in the class directly. To be used in the class room, this idea need more data for verification. In the followings I will try to give a more elaborate model.

【key words】 thinking ability, creativity, creative thinking, literariness, defamiliarization